증례발표

또 하나의 가족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

의 사

▶ **대상자**

- 나이/성별 : 51/여자
- 전신 쇠약감, 통증 시작 일주일전부터

▶ **현 병력**

- 2007년 1월에 자궁경부암으로 진단, 6차례 항암치료와 35회의 방사선 치료를 함.
- 2007년 6월 재발하여 3차례 항암치료를 받던중 체력저하 및 전신 상태 악화로 더 이상의 암치료를 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
- 내원 일주일 전부터 전신 쇠약이 심해지고 간헐적인 의식혼탁이 있었음
- 개인병원에서 통증 조절을 하였지만 VAS 7~8으로 측정.
- 이에 대한 치료를 원하여 입원함.

- 2007년 10월 통증 조절을 위해 경막외 카테터 삽입하였음. 이후 통증 클리닉에서 조절하고 있었음. → 경막외 카테터 모르핀 20mg/일
- 폐쇄성 신장장애로 경피적 신루술 하고 있었음
- 내원시 VAS 점수 : 5~6점
  돌발성 통증시 8~9점
  → 주로 복부통증과 움직일시 허리통증을 호소
- 림프관 폐쇄로 인한 하지 부종 관찰
  → 림프액이 피부로 새어 나옴

▶ **현 병력**

당뇨/고혈압/결핵/간염 : (–/+/–/–)

▶ **이학적 소견**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 안정

▶ **진단**

자궁경부암 : 다발성 골전이, 다발성 간전이,
다발성 폐전이

▶ **계획**

1. 통증 조절
   – 경막외 카테터 용량 조절
   – 모르핀으로 조절

2. 호스피스 팀 접근

▶ **경과**

- 12.14 마취통증의학과 협진후 경막외 카테터 용량조절
  – 경막외 카테터 (모르핀 50mg/일)
  – 몰핀 150mg IV 투여 → 증상 호전됨

- 12.22일 사망함

간 호 사

▶ 대상자
장 행복(가명)

▶ 진단명
난소 암 – 다발성 전이(간, 신장, 대장, 뼈 전이)

▶ 재원기간 : 2007.12.11–2007.12.22

▶ 호스피스 등록 : 2007.12.11

▶ 개인력
- 성격 : 참을성이 많고 헌신적이며 조용한 성격이나 감수성이 풍부함
- 종교 :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개종
- 병식 : 있음

▶ 환자 사정(1)
- 의식 : 명료하나 말을 하기 힘들어 함
- 식이 : 유동식(거의 먹지 못함)
- 피부 : 건조하나 얼굴은 홍조를 띄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 부종이 있는 상태
- 배변 : 1회/7–10일
- 배뇨 : 인공배뇨(PCN)
- 일상생활 정도 : 의존적(ECOG4)

▶ 환자 사정(2)
통증
- 입원 당시 : 경막 외 투여로(몰핀20mg/하루)
- 부위 : 허리, 복부 통증 호소
- 양상 : 움직일 때 심하고 으깨지듯 아프다고 함. 통증으로 인해 허리를 펴기 어려워 함.

통증조절–입원 중
- 경막 외 투여로(몰핀50mg/하루)
- 몰핀 150mg IV 지속적 투여
- 돌발성 통증 시 (VAS 8–9점): 몰핀100mg IV 투여

▶ 간호진단
#1 통증과 관련된 안위변화
#2 활동도 저하와 관련된 피부통합성 장애
#3 림프삼출액과 관련된 안위변화
#4 상황적 위기와 관련된 부적절한 가족대처

#1 통증과 관련된 안위변화
- **주관적 자료**

"허리가 너무 아파서 눕기도 힘들어하세요" (보호자)
- **객관적 자료**
  - 통증으로 인한 자세변화의 어려움 보이며 수면장애 호소함. VAS 8점.
  - 근육긴장도가 증가하고 지속적인 신음소리 냄.
- **간호 목표**
  - 진통제 투여 후 허리를 구부리고 누울 수 있다.
  - 통증 완화 시 VAS 3점 check 된다.
- **중재**
  - 통증 표현에 수용적, 개방적 태도로 접근함.
  - 진통제를 투여하고 약물의 효과를 평가함.
  - 편안한 체위 유지를 위해 지지.
  - 스킨쉽을 통한 정서적 지지.
  - 가족에게 진통제에 대한 교육 시행.

• **평가**
  – 진통제 투여 직 후 편안함을 보였으나 편안하게 눕는 것은 어려워 함.

#2 활동도 저하와 관련된 피부통합성 장애

• **주관적 자료**
  "앉아서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세요." (보호자)
• **객관적 자료**
  – 천골 부위 욕창으로 피부손상 있음(4X4cm).
  – 분비물 있음. 통증으로 체위변경 어려움.
  – 욕창 3단계
• **간호목표**
  – 욕창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 다른 압박부위 욕창이 발생하지 않는다.
• **중재**
  – 욕창사정하고 피부 간호 시행함.
  – 피부표면이 끌리거나 마찰에 의해 벗겨지는 것을 예방함.
  – 침상과 환의는 부드럽고 깨끗하며 건조상태 유지함.
  – 체위변경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절함.
  – 공기침대를 제공하고 휠체어에는 물 방석 사용함.
  – 보호자 욕창예방 교육함.
• **평가**
  – 욕창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며 다른 압박부위에 욕창이 발생하지 않음

#3 림프삼출액과 관련된 안위변화

• **주관적 자료**
  "양쪽 다리가 붓고 물이 흘러서 힘들어하세요." (보호자)
• **객관적 자료**
  – 림프관 폐쇄로 인해 하지 부종 관찰되고 림프액이 피부로 새어 나옴.
  – 삼출액으로 인해 하루 3번 이상 드레싱 시행함.
  – 환자 지속적으로 불편감 호소함.
• **간호목표**
  – 이차감염이 발생하지 않으며 불편감 감소한다.
• **중재**
  – 림프부종 정도 사정함.
  – 피부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부종부위 피부 간호 시행함.
  – 항생제 투여함.
  – 다리를 올려놓음.
  – 젖은 시트와 환의는 교환하여 건조상태 유지함.
• **평가**
  – 림프부종 더 이상 호전되지 않았고 삼출액으로 인하여 불편감 지속적으로 호소함.

#4 상황적 위기와 관련된 부적절한 가족대처

• **주관적 자료**
  "나 없으면 우리 아들들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 라고 어렵게 표현하기도 함.
• **객관적 자료**
  – 남편 사별 후 2명의 아들 외 가족의 지지체계 없음.
  – 두 아들이 간병전담하고 있음.
  – 아들 모두 내성적인 성격으로 표현하지 않으며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 함.
  – 환자는 본인의 임종 후 아들 걱정에 불안해함.
• **간호목표**
  – 가족은 서로에게 마음을 표현한다.
  – 의논할 수 있는 지지자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사업팀

▶ 대상자

- 성 명 : 장 ○○ • 성별/연령 : F/51
- 진 단 명 : 난소암 • 주거 형태 : 자가
- 종 교 : 전 개신교, 가톨릭(2007. 11. 개종)
- 결혼 상태 : 사별(25년 전)
- 직 업 : 전, 생산직(부품, 타월 공장 등)
- 의료 보장 : 직장의료보험(둘째 아들)
- 사례 개입 : 2007. 12. 14 , 임종 : 2007. 12. 22.
- 기 타
  - 2006년 12월 진단 시 전이 많이 되어 환자와 가족 희망하여 hospice care
  - 긍정적이고 헌신적인 성향으로 가장과 어머니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며 글쓰는 것 좋아해 병상일지 등 꾸준히 기록.

▶ Risk Factor screening

- 정신과적 병력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X)
- 진단초기 및 질병과정에서 적응의 어려움 (X)
- 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 (X)
- 매우 어린 자녀 (X)
- 상실의 경험이 많은 경우 (X)
- 경제적 문제 (○)
- 인지장애 (X)
- 다른 질병의 동반, 합병증 (X)
- 노인, 소아, AIDS, 시설입소자 및 행려자 (X)
- 가족문제 (○)
- 가정폭력, 아동학대 (X)

▶ Family Background

심리사회적 평가

- 환자 자녀들의 심리적 어려움
- 무기력감 : "산책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반응도 없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게 답답해요. 경제적으로도…."
- 우울감 : "전에 엄마랑 대천까지는 가봤는데… 좀더 가보고 싶지만 이젠 안되겠죠?" 환자 증상 악화되는 것 보며 힘들어 함.
- 위축된 대인관계 : "내가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땐 아무도 없어요." "요즘은 제가 키우는 물고기들이 유일한 대화 대상이예요."
- 쉼에 대한 Guilty와 anxiety : ventilation channel 부재

심리사회적 평가

- 친가와의 갈등
- 환자 남편 보상금으로 작은 주택 구입한 것 못마땅해하며 간섭 심해 타 지역으로 이사까지 함.
-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말로만 이래저래 하고… 가식적인 모습이 넌더리 나요."
- 사별 후 심리사회적 지원체계 부재

경제적 문제 평가

- 주거상황 : 자가 (빌라 : 1500만원]
- 차량 ('96 아반떼)
- 주수입원 : 작은아들 월수입 100만
- 사보험 X , 외부후원 X

  → 의료비 뿐 아니라 생활유지도 어려운 상황

▶ Care Plan & Intervention

심리 • 사회적 개입

- 무기력감 및 우울감

  → 지지적 상담 및 알아봐줌을 통한 긍정적 인식 강화

  → 집단 미술치료 참여를 통한 가족들의 심리 공유
- 자녀들의 표현하지 못하는 burn out

  → 유료간병 지원을 통한 쉼 제공

  → 쉼에 대한 guilty : 쉼의 중요성과 쉼을 통한 긍정적 효과 설명

"간병인이 있으니까 일할 때 좀 더 집중되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거 같아요."

• 사별 후 심리사회적 지원체계 부재
→ 호스피스팀 자원봉사자 mentor

▶ Care Plan & Intervention

• 경제적 개입
- 외부 후원을 통한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전환 진행 but, 개입기간 짧아 fail
- 생계비 및 유료 간병비 지원
→ 이후 자녀들이 소정의 후원금 기부

• 기타 개입
- 장례준비

원목자

영적 돌봄

2007년 12월 어느 날 장 ○○ 님(57세, 여)의 장남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다. 대전성모병원이지요? 라고하며 저의엄마가 암 말기(난소암)인데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그는 나에게 묻는다.

나는 그에게 환자가 병원에 있는지, 혹은 집에서 투병을 하고 계시는 지를 그에게 질문을 하니 우리 엄마가 을지 대 병원에 있어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왔으면 한다는 이야기다. 그럼 절차를 알려 줄 터이니 오시기 바란다는 이야기를 남겼다.

며칠 뒤 아들이 엄마를 모시고 본 병동에 입원을 한 것이다. 마침 본 병원 호스피스봉사자의 이모님이 같은 방에 입원하고 계셨고 그 봉사자가 간호를 도맡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녀에게 있어서도 많은 것이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입원 첫날이라 불안한 모습을 감출 수 없었으며 흐르는 시간 내내 말이 없는 편이며 묻는 말에만 대꾸를 하였다.

그의 엄마가 본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동기는 큰아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개신교를 오래 다니던 분으로 시모님으로 인하여 자기가 믿는 것에 회의를 느껴 을지 대 병원 원목수녀를 만나 원목수녀로부터 교리공부를 열심히 받으며 투병 중에 개종을 하게 되었다.

현재 그녀는 두 아들을 두었는데 큰아들은 28세, 작은 아들은 26세이며 작은 아들이 백일이 되었을 때 남편을 사별하였다고 한다.

권사님이신 괴팍한 시어머니는 고령이시라고 한다. 시동생들이 시모님께는 대단한 효자였지만 이 환자에게는 별나게만 느껴지는 시동생인 것으로 알고 힘겹게 살았다. 25년 전 종손인 남편을 잃은 그녀에게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를 않았다. 오히려 남동생과 친정 올케가 어려울 때 가사일과 경제적인 도움을 주곤 했다고 한다. 그러기에 그녀는 친정 인근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2007년 12월 22일(토) 07:15에 임종을 하였는데 임종하던 날 임종 직전에 작은아들이 엄마의 임종을 지키는 동안 잠깐 잠이 들어섰는데 꿈에 엄마가 하얀 옷을 입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다 한다. 눈을 떠보니 꿈이었다. 그래서인지 둘째아들의 모습은 편안하였다.

나는 임종시에 두 아들을 위로하기를 엄마가 아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난 이제 아프지 않다 걱정 말라고 하실 것이다. 엄마가 선종을 하셔서 아들 둘은

힘겹겠지만 엄마는 고통에서 해방이 되었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였더니 수긍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장제 비를 도와주겠다고 하니 두 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었지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완강한 삼촌의 진두지휘로 아무런 의사가 통하지 않아 청주로 가게 되었다. 큰아들은 천주교 신자가 된 엄마를 천주교식의 장례를 하기를 희망하였지만 집안 어른들의 난리로 다른 곳으로 갈 수 밖에 없었는데 그녀의 아들의 집안 식구들은 기독교, 유교, 천주교 등 다양한 종교로 가족의 내분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와중에도 큰아들은 양보하고 따르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반항하였으나 이를 참고 할 리 없는 이 상황을 나는 그들에게 권하여 어른들 뜻에 따르도록 하였다.

장례를 마친 뒤 소식도 없이 나를 찾아와 그 동안 많이 고마웠다며 기부금을 주면서 좋은데 써 달라고 하는 그녀의 작은 아들을 본 나는 적지 않은 놀라움 이었다.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었는데 하며 손을 잡았다. 입원기간이 11일간이어서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그녀의 아들을 대면 할 때 많은 날 보살펴 준 듯 익숙하였고 혈육이라고는 아들 둘 밖에 없어 그들이 걱정이 되었다.

나는 호스피스자원봉사자를 통하여 작은아들이 직장에서 팀장으로 승진도 하였고 신탄진 성당에 가서 교리공부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는데 4월 17일 작은 아들을 전화로 불러 토요일(4월 19일)에 만나자고하니 거절하지 않고 쉽게 대답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를 않아 할 수 없이 되어 가는대로 하려는 결심을 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저녁시간에 찾아와 잠이 들어 늦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호스피스봉사자와 함께 그와 만나 저녁을 함께하며 지내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어떻게 지내느냐 물으니 형은 아직 취직을 안했는데 곧 취직을 할 거라며 잠시 쉬고 있고 먹는 걱정은 없다고 한다. 형과 동생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밥을 짓고 반찬은 집안 어른들이 챙겨 준다고 하였다. 다른 문제는 크게 없다고 하며 두 형제는 세상에 둘 밖에 없어 잘 살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지난 세월 일찍이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마음을 굳건하게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나는 그에게 신탄진 성당에서 영세준비를 잘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내가 둘째를 위하여 할일은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는 일이라고 하였다. 다음 또 보자고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다.

– 환자와는 깊은 대화는 없었지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두 아들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모습을 통해 환자는 안심하는 표정을 역력히 볼 수 있었다.

– 환자는 구체적으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이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 절박한 상황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옆에서 친 엄마처럼 아들에게 친구를 해주고 있는 본 병원 호스피스봉사자를 통해 평화로움을 느끼게 되었다.

– 나는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녀와 두 아들을 위해 생계비로 도움을 주게 되었다.

– 또 하나는 아들들은 봉사자를 통해 사랑을 느낀 듯 보였으며 내가 아들들을 만날 때마다 아주 순수한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 임종 전 둘째 아들이 잠깐 꿈을 꾸었을 때 엄마가 하얀 옷을 입고 하늘나라로 가는 꿈은 살아 있는 자식을 안심 시기는 것임을 말하는 것으로 느낀다.

– 아버지를 일찍 잃고 또 어머니마저도 잃게 되는 그들에게 작으나마 장제 비를 도우려 했지만 가족의 분위기가 아이들에게는 자신들의 뜻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빚어져 마음이 아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찾아온 작은아들은 아주 편안한 얼굴로 반갑게 맞을 수 있었던 그 느낌은 마음속으로 감사의 연속이었다.

–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관심 있게 만나주며, 종교를 갖게 되는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자원봉사자

12월의 추위가 마음까지도 얼어붙게 하던 어느 날 모시고 살던 이모님의 폐암은 급속도로 진전이 되어 자신이 봉사하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다. 평생 독신으로 조카와 함께 사셨던 이모님은 명랑하시고 밝게 사시던 분이셔서 병실 분위기를 파악하시고 "니가 좀 거들어야 안 되겠나" 라고 투박한 서부 경남의 사투리로 말씀하셨다.

평상시 조카의 봉사활동을 적극 지지하셨던 이모님께서는 봉사 중 호스피스 봉사가 최고라고 인정해 주시며 분홍가운과 흰 블라우스를 직접 다림질 해 주시던 분이셨다.

이모님의 배려로 맞은 편 창가의자에 새우처럼 꾸부리고 밤낮을 지새우는 환자분을 만나게 되었다. 난소암이 신장으로 전이되어 부종이 심해 하지에 림프액이 흘러나와 하루에도 수차례 처치를 하며 소독포를 교체해야만 했고 의료진들의 수고는 더 할 수 없었다. 허리 통증으로 자세를 변경하기 어려워 욕창을 소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겨우 침상으로 옮길 수 있는 형편이었다.

두 아들이 간호를 하고 있었지만 의료진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환자분의 자세와 침상 주변은 어수선하고 아들들은 지쳐 있었다.

한 병실에서 기거하며 말문을 열지 않는 환자와 두 아들을 위해 환자가 가장 편한 체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 끝에 침대에서 투병할 수 있게 되었고 어렵게 휠체어 산책도 가능 했다. 때마침 호스피스 팀장 수녀님께서 사회사업팀을 통해 간병지원을 해 주셨다. 헌신적인 간병사와 함께 봉사자의 방문으로 영적인 지지도 가능했으며 집에 다녀올 수 있는 시간에 두 아들의 식사와 간식을 나눌 수 있었다. 그러면서 병동에 입원해 계시는 환자분과 보호자들의 침울한 분위기 전환을 위해 봉사자이면서 보호자의 역할을 해 보자는 생각에 오전, 오후, 밤 시간 잠 못 주무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레크레이션과 간식시간도 함께하며 시선이 일치하도록 침상의 위치도 돌려드리고 보행이 가능한 환자는 병실 중앙의 의자에 앉혀 드린 후 삶의 진솔한 얘기를 나누는 속에 자연스레 가족력, 경제력, 병력이 나왔다. 유방암 투병 중이신 환자분은 남편의 주벽을 이야기 하시면서 그래도 떠나간 그 남편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낀다고 말씀해 주시고 시간만 나면 봉사자를 남편이라고 부르면 자신은 미모가 뛰어나 경제적이라고 병실 밖에만 나가도 남편을 배웅하듯 하고 부를 때도 자기야! 서방님! 하고 불러 병실에 웃음을 자아내게 하였다.

늘 상 떠나지 않는 웃음 속에서 투병하며 순간 임종직전에 있는 환자분이라는 사실보다는 행복하다고하며 병원이 너무 좋다고 까지 했다.

우울했던 환자분들이 안정을 찾으며 기쁘게 투병하며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것도, 다른 곳으로 시선을 바꾸어 주는 것도 봉사자의 역할이 아닐까….

매순간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었다. 환자로 바라보지 않는 건강한 사람과의 자연스런 대화와 웃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런 나날 속에 5307호실은 더 이상 호스피스 병실이 아니었다. 약 2주간의 병실에서 함께 한 시간 속에 정이든 환자 한 분은 봉사자를 의지하며 외롭게 살아온 삶을 달래고 했다.

부담 없는 식사를 하며 냉장고 속의 음식과 간식은 공동 소유였다.

표현을 하지 않던 큰 아들은 미래와 어머니 사후를 논의했고 봉사자가 해주는 음식은 전체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했다. 미술 요법 시간에 지점토로 함께 꽃과 천사도 만들었다. 둘째 아들은 나날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6살인 둘째 아들이 백일 무렵 직장에서 퇴근하던 길에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보상금

문제로 시어머님과 시댁과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작은 빌라 한 채를 구입해 아들들과 살면서 시댁의 외면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단 한번도 시댁과의 연락은 없었다고 하였다. 두 아들의 방문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했다. 혼자 두 아들을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면서 많은 어려움과 갖은 궂은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느라 병원조차 갈 수가 없어 치료시기를 놓치고 콩나물과 김치만으로 연명하고 살며 두 아이의 등록금이 나오면 돈 꾸러 다니시던 어머니의 모습만이 기억에 남아 있어 자신이 공고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 4대 보험을 공제한 나머지 백 만 원의 수입으로 어머니께 효도하며 돈 꾸러가는 일은 없었다고 했다. 그 작은 행복도 잠깐 어머님의 잦은 항암치료, 입 · 퇴원으로 형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그나마 약간의 퇴직금이 도움이 되었고 어머니를 간호할 수 있는 가족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환자분 식사로 두 아들이 함께 나눠 먹으니 서로가 양보하여 어느 누구도 끼니가 되지 않았다. 두 아들의 식사 해결과 마음을 열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24시간을 함께 병실에서 기거하며 친숙해져 갔고 어머님과 대청댐 가을 나들이 갔을 때 핸드폰 속에 저장한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빡빡 밀어버린 어머님의 반질거리는 머리를 만지며 어머니는 문학을 좋아하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늘 글을 쓰셨으며 사진 속 머리는 길으셨다고 자랑을 했다. 아들의 긴 머리 얘기에 환자분이 옆에서 듣고 미소를 보내며 흐뭇해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뒤로하고 환자분은 아들을 챙기며 보살피는 봉사자에게서 며칠을 시선을 떼지 않으셨다. 하루 온 종일 봉사자가 걸음을 옮겨 놓을 때마다 시선이 따라다니며 아들들을 보살피며 챙기는 모습, 모든 것을 마음에 담으시는 듯 했다.

봉사자가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니 대답을 않으셨다. 살짝 손을 잡으며 이 세상 걱정은 말고 삶을 잘 마무리 하시고 하느님 품으로 가시라고 했다. 고개를 끄덕이셨다.

두 아들을 병실을 지키게 하고 집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수간호사님의 급한 전화를 받았다. 임종 소식이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는지를 짐작케 한다. 급히 달려가니 작은 아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근교에 살고 계신 시댁과 친지에게 연락을 하고 작은 아들과 두 눈을 감겨드렸더니 계속 눈을 뜨셨다. 잠깐 집에 갔다가 임종 소식을 듣고 큰 아들이 왔다. 모두 함께한 자리에서 신앙의 유산 속에 잘 보살피며 또 하나의 가족으로 살아가겠다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뒤돌아보지 말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느님 나라로 가시라고 눈을 감겨 드리니 두 눈을 감으셨다. 그 때 볼을 타고 한 줄기 눈물이 주루룩 흘러 내리셨다.

고인의 임종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과 집안 어른들은 집안의 종부를 후히 장사지내고 남편과 합장해서 종중산에 안장했고 장례를 치루기 전 남남인 봉사자도 이토록 보살펴 주었는데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며 남은 두 아들에게 잘 하겠다고 고인의 시동생이 약속했다. 경제적 지원까지도….

어머니의 생애, 투병기, 가족력을 모두 들려주며 의지하던 눈이 사슴 같은 둘째와 손잡고 기도하며 함께 했던 만큼 가까운 성당에서 세례 준비를 하며 잘 지내고 있다며 최근에 전화가 왔다. 어머님의 산소를 한 번 다녀오라고 했다. 한식이 지나 어머님의 산소를 다녀왔다고 전화가 왔다. 형인 큰 아들도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첫 명절을 작은집에 가서 지낸 소감을 얘기했고 계절이 바뀌어 봉사자의 이모님이 투병하는 병실에 양복을 차려 입고 봄소식을 전하러 왔다.

용○야! 용○아! 밥 묵자! 그러나 이제는 '제가 사드릴게요' 라고 했다.

하느님께서는 고통 중에서 더 많은 것을 계획하시고 기쁨을 넘치도록 주셨다.

장○○ 여사님!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소서!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 샘나게 지낸답니다.